전남 원유·벌크, 부산 컨테이너 '제2의 투포트' 추진해야

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

석화·철강산업 세계 불황···정부는 물동량 중심 재정 지원 여수광양항 침체 가속화 우려 "부산과 협력체계 구축해야"

전남도가 북극항로 관문항 조성에 사활을 건 이 유는 전남 대표 항만인 여수광양항이 경쟁력을 잃 고 있기 때문이다. 여수광양항은 원유(석유화학 제품 등)와 철강 등을 주로 수·출입하는 항만이지 만,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 세계적인 업황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여수광양항의 침체가 가속 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.

또 과거에 마련된 항만육성 계획인 광양・부산항 '투포트' (two port) 정책이 사실상 폐지됐고, 정 부가 예외없이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를 고수하고

◇여수광양항 물동량 '뚝'…정부 지원도 미미=여 수광양항만공사에 따르면 2024년 총 물동량은 2 억7438만여t으로 2021년 총 물동량인 2억9535여 만t에 견줘 7.1%(2097만t)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 다. 당장 올 2분기 총 물돌량 역시 전년 2분기와 비 교해 1.3% 줄었다.

컨테이너 처리량만 보더라도 2021년 212만여t 에서 지난해 200만여t을 기록했는데, 이마저도 2022~2023년 2년 연속 감소했다가 반등한 수치 다. 여수 석유화학과 광양 철강산업 모두 활력을 잃으면서 여수광양만의 물동량 또한 영향을 받았 다는 게 산업계 분석이다.

미미한 정부 지원도 여수광양항 경쟁력 약화에 한 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. 과거 참여정부는 국 내 항만육성 계획으로 투포트 전략을 꾀했다. 부 산항과 여수광양항을 국내 대표항만으로 계획이 었지만 이명박,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부산항 '몰빵' 전략으로 전락했다.

이로인해 여수광양항과 부산항의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. 부산항의 2024년 총 물동량은 4억6348 만여t으로 2021년(4억4255여t)과 비교해 4.8%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. 여수광양항은 7% 줄어 드는 동안 부산항은 '메가항만' 으로 거듭났다.

우리 정부는 트리거룰을 적용해 항만 예산을 책 정하고 있다. 오가는 선박수와 물동량 등 '잘되는' 항만에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정책이지만, 이로인

해 여수광양항에 대한 지원은 타 항만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.

'제3차 전국 항만별 시행계획' (2011~2020년) 에 따르면 여수광양항 지원예산은 2000억원이었 다. 부산항은 1조3842억원, 인천항 5088억원, 울 산항 7392억원 등으로 전남보다 많게는 7배 가량 많은 예산을 지원받았다. 여수광양항은 동해·묵호 항(2918억원), 삼천포항(2133억원)보다도 적은 예산을 배정받았다. 제 4차 전국 항만별 시행계 획'(2021~2030년)을 통해선 3조7400억원으로 늘었지만, 부산항(10조), 울산항(5조)에는 비할 바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. 적은 예산지원으로 율촌-광양 간 연결도로와 항만자동화 테스트벤드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.

◇전남 원유·벌크, 부산 컨테이너로 제 2의 '투 포트' 운영해야=전남 산업계 안팎에서는 북극항 로 개척을 계기로 '제 2의 투포트 전략'을 추진해 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. 여수광양항이 북극항 로에 적합한 비컨테이너선 물동량이 많고, 지리적 강점을 가졌다는 점에서다.

국내 최대 항만인 부산항 조차도 비컨테이너 물 동량은 2200만t으로 여수광양항(2억4520만t) 의 10분 1 수준이다.

부산항은 컨테이너 화물량이 전체의 94.9%로 압도적이다. 이 때문에 부산항을 컨테이너선 거 점으로 여수광양항을 비컨테이너선 거점으로 활 용해야 한다는 데 설득력을 얻고 있다. 원유, 벌크 화물과 관련된 여수광양만의 강점도 부각되고 있 다. 당장 석유화학, 철강산업이 항만 근처에 위치 해 있고, 포스코가 추진 중인 LNG 터미널과 묘 도 개발사업 등을 통해 천연자원의 원활한 저장, 운송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.

김현덕 순천대학교 물류학과 교수는 지난달 31 일 국회 포럼에서 "북극항로와 관련해 여수광양항 만의 강점을 부각시켜 부산항과의 협력 체계를 구 축해야 한다"고 제언했다.

/김민석 기자 mskim@kwangju.co.kr



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광주 북구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주민 참여형 통합돌봄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.

/김진수 기자 jeans@kwangju.co.kr

정은경 복지부 장관 "광주시통합돌봄 빈틈없는 서비스 인상적"

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적용

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광주시 통합돌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.

6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 장관이 내년 3월 '의료· 요양·돌봄 통합지원법'의 전국 시행에 앞서 선도 적으로 운영 중인 '광주다움 통합돌봄' 현장을 살 펴보기 위해 이날 광주를 방문했다.

정 장관은 강기정 광주시장과 시청 중회의실에 서 열린 시·자치구·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과 '돌 봄정책 현장간담회'에 참석했다. 이후 광주시 북 구의 돌봄 실천 현장을 함께 살폈다.

정 장관은 이날 광주시 돌봄 정책과 돌봄 실행현

장을 두루 확인했다. 또 전 국민 주치의제 현장 등 도 점검했다.

이후 정 장관은 강 시장과 함께 북구 오치복합커 뮤니티센터를 방문해 대상자 발굴, 초기상담 때부 터 필요성 조사, 개별 돌봄 계획 수립, 통합지원회 의 운영, 서비스 지원 및 연계, 모니터링 및 종료 등에 이르는 통합돌봄 서비스의 6단계 과정을 들

이어 북구보건소를 찾아 '전국민 주치의제'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실천현장도 함께 했다.

정 장관은 "광주 통합돌봄이 현장에서 어떻게 촘촘하게 구현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 다"며 "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빈틈없는 서비스

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"고 말했다. 이어 "보편적 접근과 맞춤형 연계 등 선도 사례

들이 전국 확대 시행의 모범이 될 것"이라면서 "광 주의 현장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충분히 반영해 내 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 때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"고 강조했다.

한편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, 신청주의 ·선별주의의 한계를 넘어 보편적 접근을 도입한 광 주다움 통합돌봄은 기존 제도가 담당하지 못하는 틈새까지 통합돌봄 서비스로 보완하고, 민·관 협 업과 전산시스템까지 자체 개발해 현장 지원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평가된다.

/정병호 기자 jusbh@kwangju.co.kr

김건희 특검 출석 7시간 대면조사…추가소환 할 듯

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여 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로 출석해 7시간 가량 대면조사를 받았다.

6일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사무실에서 이뤄진 김 여사의 대면조사에서 김 여사는 핵심 혐 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.

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수사 대상 혐의가 방 대한 만큼 특검팀은 김 여사를 조만간 다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.

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

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.

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를 둘러싼 16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.

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, 명 태균 공천개입 의혹, 건진법사 청탁의혹 등 순서 로 김 여사를 신문한 것으로 알려졌다.

특검팀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, 양평고속도 로 특혜 의혹 등 다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김 여 사를 추가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.

/정병호 기자 jusbh@kwangju.co.kr

대미 관세 여파에도 전남산 농수산식품 수출 ↑

상반기 5.8% 증가…김·쌀·전복 등

대미 관세 여파에도 전남산 농·수산식품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.

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4억 1847만 달러로, 지난해 같은 기간보 다 5.8% 증가했다.

김·쌀, 전복, 미역 등 수출이 꾸준했고 미·중국

에다 신남방 시장 수출 확대도 성장세를 이끌었다 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.

김이 2억 1371만 달러로 전년도에 견줘 12.1% 늘면서 전체 농수산물 수출의 절반 이상 (51.1%)을 차지했고 쌀(2795만 달러), 전복 (1797만 달러), 미역(1435만 달러), 음료 (1377만 달러) 등이다.

국가별로는 미국(22.6% ↑)과 중국(8.8% ↑)

이 성장세를 보였다. 미국은 김(21.3% ↑)을 중심 으로 장류·김치 수출이 늘었다. 대만에서는 배 수 출이 247.4% 급증하는 성과를 거뒀다

베트남(24.7% ↑), 태국(42.4% ↑), 인도네시아 (88.4% ↑) 등으로 김과 주류 수출 등도 늘었다.

시·군별로는 화순(102.8%↑), 진도 (106.4% ↑) 등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였다.

전남도 관계자는 "고부가가치 상품 중심으로 수 출 시장을 다변화해 글로벌시장에서의 전남산 농• 수산식품에 대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"이라고 말했다. /김지을 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상속한정승인공고

· **피상속인** : 망 최영춘(450917-1XXXXXX) • 최후주소 : 전남 담양군 봉산면 봉학길 6 피상속인 망 최영춘의 상속인은 위 피상 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된 주가정법원 2025느단4141호로 신청하여 2025년 8월 5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 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

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

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

됩니다. 2025년 8월 7일

- 상속인 : 최상주(760804-1XXXXXX) 전남 담양군 봉산면 봉학길 6
- · 신고기간 : 2025. 8. 7. ~ 2025. 10. 17. • 채권신고처 : 상속인 최상주의 주소

자본감소로 인한 주권제출공고

본 회사는 2025년 8월 6일 개최한 주주전원 의 서면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 300,000,000원 을 150,000,000원으로 감소하기로 하고 그 방 법으로서 1주의 금액 금 10,000원의 주식 1주 에 대하여 0.5주의 비율로 하여 주주에게 환급 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구 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월 내에 구주권을 본

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.

> 2025년 8월 7일 주식회사 호성건설 광주 남구 독립로 139-1(월산동) 사내이사 이 진 범

2025년 8월 7일

• 신고장소 : 광주 동구 동명로 110, 304호

• 신고기간 : 2025. 8. 7. ~ 2025. 10. 13.

상속한정승인공고

망 김두섭(1929. 7. 4. 생, 2024. 11. 18. 사망, 최

후 주소 :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읍동길 25-

4) 상속재산의 상속 한정승인자로 민법 제1032

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일반 상속채

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는 공고기간 내에 그 채

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공고

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.

2025느단10392호 상속한정승인

(지산동, 법조타운) 법무사법인 무등

• 사건번호 :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

청 구 인:정연자, 박진, 박재은

당 회사는 2025년 8월 6일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로 자본의 총액 300,000,000원을 5,000,000원으로 감소하고, 그 방법으로 1 주의 액면금액 10,000원의 주식 29,500주에 대하여 균등 유상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 30.000주를 500주로 감소하는 방법으로 자

본을 감소하기로 결의하였음.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동 기일까지 구주권을 당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함.

대표이사 권현석

2025년 8월 7일 청담광업 주식회사 전라남도 순천시 고지1길 68, 2층 (가곡동)

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

본 회사는 2025. 6. 24. 임시주주총회의 결 의로 자본금의 총액 금 300,000,000원 중 금 250,000,000원을 감소하여 자본금을 금 50,000,000원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서 발 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30,000주(주주 이 용보의 주식) 중 주주 이용보의 보통주식 25,000주에 대하여 무상소각 하기로 하였으 므로 위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 공고의 게재 일로부터 1월내에 위 주식을 본 주식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

2025년 8월 7일

주식회사 레논이엔지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금강산로 325-9,3호

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

느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익일로부터 1월 이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정정 공고함.

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

한 임시주주총회결의에서 자본의 총액 금

310,000,000원 중 금 150,00,000원을 감소하

여 자본의 총액을 160,000,000원으로 하기로

격의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 10,000원

의 주식 15,000주를 유상 소각하여 발행주

총수 31.000주를 16.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

하였으므로 이 자본 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

일까지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의 주

식을 소지하고 있는 주주는 본 회사에 주식을

2025년 8월 7일

가온글로벌 주식회사

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입춘로 45,

엔터비즈타워 비동 503호 (반곡동)

대표이사 고경일

제출하여 줄 것을 공고합니다.

- 이 공고게재일 다음날부터 2025년 09월 08

본 회사는 2025년 07월 28일에 실시

대표이사 배승희

※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!

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.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 가 직접 관리합니다.

(재산조사비,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)

- 전세보증금,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, 상속채권 전문 회수
- 분양대금 연체 등, 채무자(신용)재산조사만 의뢰 가능
- 법인공사대금,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

판결문, 공증·공사대금·각서·운송료·차용증 거래장부 계약서 입금 내역 녹취 등 각종채권상담

직통전화 062)521-4109 010-2785-0073

◎ 光则日報

지국안내

담 구 ·남 부 673-6836 ·백 운 651-1833 ·봉 선 673-6836 ·송 하 675-6605 ·진 월 671-7276

•오 치 266-7601 •용 봉 433-1503 •우 산 433-1503 동 구 ·남 광 673-6836 ·동 명 222-9054 ·동 부 225-6001 ·중 앙 222-9054 ·충 장 222-8171

・광 천 382-5788 ・상 무 372-2352 ・사광주 369-1625 ・운 천 376-7153 ・치 평 376-6511 ・풍 암 603-0311 ・화 정 369-1625

_ 광산구_ •운 남 952-1687 •월 곡 959-1920 •첨 단 973-2900 •하 남 955-0451 •광 산 944-0444